

환경 농업이 가져다준 마을 운동

주 형 로

오리농업연구회장

1. 환경 농업을 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 시절 바른 농사를 짓는 분들의 모임인 정농회를 통하여 유기 농업을 알게 되었고 일본 견학을 갈 기회에 아와지시마라는 섬에서 원숭이들의 일생을 통하여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고 나타나는 신체적 기형을 보며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불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적은 면적부터 유기 농업을 시작하여 해마다 조금씩 늘려갔다.

이웃에게 환경 농업만이 우리의 땅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권유도 했지만 잡초와의 싸움과, 소출 면에서 모든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1994년도에 농업학교의 은사님을 통하여 오리농법을 소개받았고 인력으로만 하던 제초 작업을 오리가 도와 주게 되어 많은 면적으로 확대 할 수 있었다.

2. 농업 기술 센터 설득

오리 농법을 확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망을 설치하고 오리 막사도 지어야 하고 또한 오리를 구입하는 비용도 부담이었기에 기술 센터에 도움을 청하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리 농법을 9,000평에 할 수 있도록 자재비와 오리값 2백만원을 지원받았다.

3. 단지 조성

한해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19농가 31,900평의 단지를 조성하여 오리농법 작목반도 결성하였고 그 이후로 해마다 많은 농가들이 함께 하여 현재 홍성 일대에 173농가 42만평의 면적에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4. 품질인증 획득

96년도에 처음으로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았고 98년부터 유기재배 단체 인증을 받아 현재 연간 1만5천 가마의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를 생산하게 되었다.

5. 도농 일심 함께 짓는 벼농사 착안

1995년 오리 보내 주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환경 농업을 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논에서 일을 마친 오리를 오리 보내 준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자신들이 보내준 오리로 지은 쌀에 의미를 알게 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 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전국의 도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하여 250명이 약 2천만원의 오리값이 모아졌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과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해 6월6일에 오리를 보내 준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논에 오리를 넣어 주는 행사를 성대히 치루어 현재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또한 가을에는 풍성한 농촌 인심으로 거뒀다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 생산한, 과일과 떡 등 음식으로 나눔의 잔치를 열어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메뚜기 잡기도 하는 풍성한 잔치도 매해 가을이면 하고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서 1,000여명이 모이는 지역에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6. 농업 협동조합, 유통 업체, 생산자가 하나 되어 계약재배

오리농법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많아졌다. 생산자는 판로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업체 또한 품질이 확실한 농산물을 취급하므로 신용을 쌓고, 생산자들은 안전한 가격 보장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하여 수매하도록 하는 계약 재배를 유도하여 현재 일반벼 11,000가마(40kg)와 흑미벼 4,000 가마(30kg)를 계약하여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자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외상 거래를 하지 않도록 농협이 현찰 거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

7. 흑향미 재배로 오리 농법의 급속한 확산

모든 농업이 그리 소득이 많지 않지만 논농사만큼 소득이 적은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유기 농업은 노력의 대가가 너무 없는 힘든 일이기에 많은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 지역 또한 단지가 조성이 되었어도 점차 확대되리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1995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흑미로 인하여 소득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 마을 환경 기금 조성

생산자들 뿐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과 바른 먹거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처음 벼를 수매하면서부터 가마당 조금씩 떼어놓은 환경 기금이 4천 5백만 원이 되었다.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을의 모든 일들이 오리농법 단지를 바탕으로 협동하게 되어 많은 일들을 공동 작업으로 하고 있다.

모아진 환경 기금으로 환경 농업 교육관 지을 터를 마련하였다.

9. 환경 농업 교육관 건축

21세기를 준비하며 환경 농업 교육관을 짓기로 의논하고 정부에 우리의 계획안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년 간 모아 온 기금으로 회관을 지을 땅 3,000평을 마을 중심지에 공동 구입하였고 환경을 생각하며 흙벽돌 3만장을 직접 찍어 준비하였고, 마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다. 드디어 2000년 6월에 생태적인 자재를 이용하여 환경교육회관은 착공을 하였고 12월에 준공을 하여 현재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있다.

10. 환경 농업 교육관 세부 사업

교육장, 식당 : 170평, 찜질방, 숙소 : 80평, 박물관 : 60평.

마을의 행사나 가정의 대소사 또는 각종 크고 작은 모임을 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체 노동으로 힘든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찜질방, 도시민들이 자녀

들과 자연을 접하고 좋은 환경을 배울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는 숙소로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농기구나 생활 용품들을 모아 놓아 옛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약 2,000여 점의 농기구와 생활용품이 준비되어 있다.

11. 문당리 생태 마을 100년 계획서

앞으로 환경 교육 회관과 오리 농법을 중심으로 마을의 많은 일들이 계획되고 협동하여 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세의 운동으로만 남지 않도록 후세에도 아름다운 마을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100년 계획이 필요하였다.

마을 주민들만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 환경 단체인 녹색 연합에 의뢰하여 현재 여러 가지 마을의 생활 환경과 앞으로의 환경까지 세세히 조사하고 계획하여 “21세기 문당리 발전백년 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문당리 마을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런 마을을 꿈꾸고 있는 마을의 표본이 되어 더 나은 계획과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는 하려고 하는 의지와 시작이 필요하다.

12. 백년 계획서의 중요 내용

가. 마을의 백년 계획의 배경(농업 농촌의 변화, 농촌사회의 과제)

1) 홍동면 문당리의 마을현황

ㄱ. 위 치

홍성읍에서 남쪽으로 8km 동남북쪽으로 산이 둘러 쌓여 있고 서쪽으로 삼교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홍동 저수지를 접하고 있음.

ㄴ. 지 형

100m 이하의 산지가 좁게 펼쳐지고 대부분 100m 이하의 구릉지로 이루어져있고, 오서산에서 발원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삼교천이 면의 중서부 지역을 지나고 있음.

2) 문당리의 인구 구성

계	20대	30대	40대	50대
184명	43명 (23.3%)	32명 (17.3%)	25명 (13.5%)	42명 (22.8%)

마을의 총 가구수는 90호로 농가가 81호 비농가가 9호이며 인구는 285명으로 리단위의 마을로서는 비교적 큰 마을 임.

마을의 노동력 인구184명 가운데 20대에서 40대가 100명이나 차지할 정도로 전국 연령별 노동현장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음.

나. 넉넉한 마을 만들기

- 오리농 쌀을 특화시킨다.
- 새로운 소득원을 만든다. 다양한 도시, 농촌 교류를 가진다.
- 마을 경제 완성하기

다. 오순도순한 마을 만들기

- 평생교육 실현하기.
- 대를 잇는다.
- 삶의 질을 높인다.
- 정보화 시대에 앞서간다.
- 두레공동체로 거듭난다.
- 도시인들에게 고향 마을이 된다.

라. 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 하천을 살린다.
- 건강한 숲으로 가꾼다.
- 토양 미생물로 자연 생태계를 살린다.

마.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

- 자연에너지 이용하기.
- 자연과 조화되는 주택 만들기.
- 전기에너지 절약하기.

- 물이 순환하게 하기.
-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바.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

1) 1단계(2000년~2010년)

- 마을조성 1세대가 주가 되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을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

2) 2단계(2010년~2030년)

- 마을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

3) 3단계(2030년 이후)

-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 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가 행해 지는 시기

사. 사업추진 지역 연계 방안

마을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학교, 기업, 단체, 기관 등

아. 사업별 추진계획(세부 과제, 예산)

13. 애로 사항과 앞으로의 바람

인력으로만 하던 제조 작업과 병해충 문제, 그러나 환경 농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오리를 이용하거나 우렁이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방법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 이변에는 아무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 마을의 환경 운동은 시작인 셈이다.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부나, 학교나, 단체나,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면 더 멋진 미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경교육관을 중심으로 명실공히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마을의 표본이 되기를 바라

며 많은 마을들이 우리 마을보다 더 나은 마을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환경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특히 요즘의 일등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을 통해 배우고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알수 있는 기회를 농촌을 통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로, 농촌의 주체인 농민의 자세이다.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 생각하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농업은 살수 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계획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농민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자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에는 협력과 지원을 하여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농회 소개>

= 정농회 강령 =

- 1. 우리는 농업이 인류생활의 근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육 번성케 하시는 일에 순응하기 위하여 바른 농사에 정진한다.
- 2.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확신하고 정농으로써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철저히 한다.
- 3. 우리는 농사의 참사명을 자각하고 정농정신으로 모든 노고를 기쁘게 받는다.
- 4. 우리는 농촌의 근본적인 개선이 청년들에 대한 정농교육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모범이 된다.
- 5. 우리는 동지적 단결을 확고히 하여 사랑과 협동의 이상농촌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초석이 된다.

- 정농회 설립 연도 : 1976년
- 사단법인 등록 : 1996년 10월 28일
-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 설립 목적 : 경천애인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숭선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전전한 생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표자 : 정상목 회장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64번지
- 연락처 : 전화 041-631-2147, 전송 041-631-2148
- 회원수 : 600명

▶ 정농회 역사

1975년 9월 20일 부천시 도당동 소재 풀무원 농장에 30여명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농부들이 모였다. 풀무원 농장의 원경선 선생의 연락을 받고 모인 농부들은 3박 4일간 관행농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일본 애농회(일본이 1945년 패전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자 식량증산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 고다니 준이치가 창립한 유기농업단체)의 창립자 고다니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 원경선 선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고다니 선생은 우선 중부지방을 동서로 횡단하며 벼농사의 작황을 둘러보고 “한국은 일본 농업을 뒤쫓고 있다. 수도작에서 대체로 질소과다 현상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농약의 사용은 기형아 출산, 암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한국 정부에 충고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으로 농업정책을 전면 개혁하라. 유기농업으로 시급히 전환하라. 한국 농민에게 강권한다. 화학농법은 간접살인 행위이니 이를 통절히 뉘우치고 영농방법을 즉각 전환하라. 한국 국민에게 부탁한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농법에 의한 생명파괴 현상은 곧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니 시급히 국민적 결단을 내려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라.”

고다니 선생은 자신의 한국 방문의 목적이 과거 일본의 한국민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던 역사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연수회 서두에서 밝히고, 한국 농업이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자신이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이라며 농업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회에 참석한 우리 농민들은 일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농약에 의한 각종 피해를 전해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우리 농민들은 심각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76년 1월 20일, 30여명의 농민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였고 고 다니 선생이 다시 와서 강의를 했다. 연수회를 마치는 날 농부들은 “하느님의 강권으로 정농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관으로 삼기로 결의하였다. 초대회장으로 오재길 선생을 선출하고 5개항의 정농회 강령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농회는 매년 1월 중순에 3박 4일간 연수회겸 총회를 열어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회원들에게 행해왔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실천해 왔다. 전국에 부안, 장성, 팔당, 해남, 화천, 홍성지회 등 6개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유기농업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8월에는 2박 3일의 여름 연수회가 있고 연 1회 회보와 생명역동농법(바이오 다이내믹) 농사력을 발행하고 연 6회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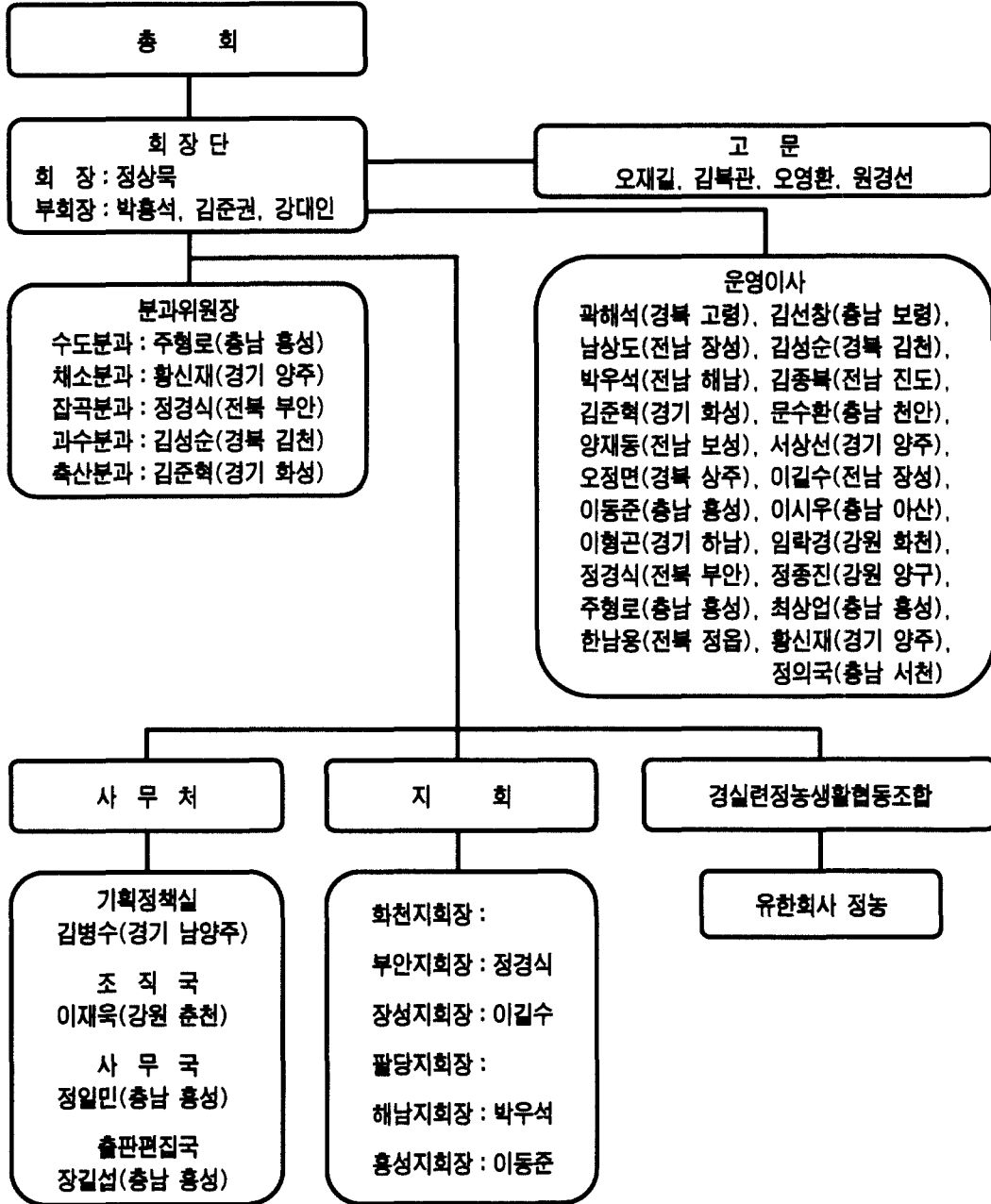
1990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합작하여 경실련정농생활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정농회원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정농회가 생산과 품질을 책임지고 경실련이 소비자조합 및 유통업무를 맡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정농생활협동조합은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37-5번지 한홍빌딩 1층에 있다.

▶ 정농회 주요 활동

1. 1976년 기독교 신앙인 30여명이 경기도 부천의 풀무원농장에 모여 유기농업을 실천하기로 결의하고 정농회를 창립.
오재길 선생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후 매년 1월에 정기연수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매년 7~8월에 여름 연수회를 개최하여 회원에 대한 정농(正農)교육을 전개(연간 400여명이 교육을 수료).
매년 각 지회별로 회원들과 지역 농들에 대한 유기농업 교육을 실시.
정농회보 발행(유기농업 정보와 올바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제뭉치는 내용으로 현재 20호까지 발행).
연 6회 정농소식지 발행.
2. 1986년 정농회 해남지회 창립.
3. 1987년 정농회 회원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정농유통센터 설립.
4. 1990년 경실련은 정농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책임지고, 정농회는 안전한 정농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기로 하여 경실련과 합작하여 경실련정농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오영환 선생 정농회장 취임.
5. 1991년 정농회 홍성지회 창립
6. 1994년 김준혁 장로 정농회장 취임, 정농회 화천지회 창립.

7. 1995년 정농회보선집(16권의 정농회보에서 중요한 글을 모아 엮은 520면의 단행본) 발행.
 바이오 다이내믹농법 도입. 바이오 다이내믹 농사력 1995년판 발행.
 창립 20주년 기념식 거행.
 일본 애농회의 제안으로 매년 한·일 교류 연수회를 갖기로 함.
8. 1996년 김복관 선생 회장 취임.
 생명역동농업 농사력 1996년판 발행.
 농림부 사단법인 등록.
 일본 애농회 주최 제1회 한·일 교류 연수회 참가(일본).
 제1차 아시아 청등오리벼농사 농민교류회 참가(일본).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에 참여하여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현장실습에 주력.
 오재길 고문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추대됨.
9. 1997년 사단법인 정농회 출판사 등록.
 《청등오리와 함께 짓는 벼농사》 출간.
 생명역동농업 농사력 1997년판 발행.
 제2회 한·일 교류 연수회 개최(경기 양주).
 제2회 아시아 청등오리벼농사 농민교류회 개최(충남 홍성).
10. 1998년 김복관 회장 퇴임.
 정상목 부회장 정농회장 취임.
 정농회 부안, 장성, 팔당지회 창립.
 생명역동농업 농사력 1998년판 발행.
11. 생명역동농업 농사력 1999년판 발행.
 1999년 국제 바이오 다이내믹농업 연수회 참가(스위스).
 제3차 아시아 청등오리벼농사 농민교류회 참가(베트남).
 제3회 한·일 교류 연수회 참가(일본).
12. 2000년 제4회 한·일 교류회 개최.
 생명역동농업 농사력 2000년판 발행.
 농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신적 기초 <농업강좌> 출간 예정.

정농회 조직표



정농회 기본 방침 및 사업추진방향

1. 창조질서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정농운동 확산

- ▶ 정농회 강령의 실천

2. 정농 교육 및 각종 농법의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 ▶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정농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사회적으로 농업의 자연적, 문화적, 생태적 의미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
- ▶ 연 2회의 정기연수회, 각 지회 교육, 전문 연수 등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정진
- ▶ 귀농희망자들에 대한 정농교육을 충실히 하고 그들의 농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
- ▶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BMW순환농법, 생명역동농법 등을 생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험·실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
- ▶ 정농회원들과 일반 농민들에게 유기 농업으로, 더 나아가서 유기농업보다 한 차원 높고, 파괴된 농업 환경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농법인 생명역동농법(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3. 내부 인증제도 수립

- ▶ 정농회원의 생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내부 인증제도 수립

4. 정농연대사업으로 정농운동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 및 유한회사 정농을 통한 정농회 농산물 유통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소비자와 정농회원과의 공동체적 나눔을 실현
- ▶ 유기적인 공동체 나눔 운동을 위한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
- ▶ 우수한 벼종자 개발, 보급 및 토종 종자의 교류
- ▶ 신입회원 및 귀농자들을 순회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착을 지원

5. 정농운동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 확대

- ▶ 정농회원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통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유한회사 정농을 통한 정농회 농산물 유통 촉진으로 정농기금 확대 조성
- ▶ 정농회 관련 서적 판매 활성화

6. 국제기구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교류

- ▶ 일본 애농회 및 PHD협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운동과 유기농업운동을 개선
- ▶ 아시아 오리농법 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지역 유기농민들과의 교류를 심화 확대

7. 전국 각 지역에서의 지회활동 강화

8. 출판·홍보 사업

- ▶ 정농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 회보와 소식지를 발간하여 회원 교육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기 농업의 중요성과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농업을 중심으로 고려하도록 계몽하고 회원들간의 연대의식을 고양하며, 환경과 유기농업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 ▶ 연 1회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사력을 발간하여 생명역동농법을 구체적으로 실천
- ▶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서 《농업강좌》를 충실하게 번역·출판